

中 철강 감산에 강세장 기대감… 현대제철 등 주가 ‘훈풍’

현대제철, 지난달부터 6.4% 올라
국내 철강가격 상방압력 작용 분석
중국 철강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도

중국발 철강 감산에 따른 가격 강세로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철강 업황의 개선 여지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훈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다만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철강주들의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철강 가격 강세장이 시작될 경우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대제철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6.4%(종가 기준)가 올랐다. 더불어 고려아연도 1.3% 소폭 상승했다.

이규익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 중국 감산이 예년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철강 성수기 효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철강 업체”라며 철강대형주 중 최선호주(Top Pick)로 제시했다. 중소형주에서는 동국제강을 꼽았다.

철강업은 지난 5월 이후 중국의 철강 생산 증가로 인해 부진한 시기를 겪었다. 2차전지주로 분류됐던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현대제철, 고려아연,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의 주가는 혼조를 반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이 지난해보다 철강 감산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 가격의 강세가 점쳐지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이 연구원은 “7월 말 대형 철강 업체에 감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강소성 등 철강 주요 생산지에도 감산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며 “9월부터 강도 높은 감산과 수요 성수기 시작되면서 철강 가격 강세를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중국 철강 가격 상승이 국내 철강 가격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6억2900톤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강 생산량이 작년 대비 감소하려면 남은 기간 일평균 조강생산량이 241만톤 이하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일평균 조강생산량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9월부터 철강재가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성수기 수요 증가와 겹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중국 철강 수요에서 부동산이 약 36%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흐름의 개선도 중요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부진이 시작됐고 당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2015년과 같은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비구이위안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고, 같은 맥락으로 중국 철강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도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조강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7월에 11% 증가했고, 8월에도 한자리수 후반 증가 가능성이 높아 증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작년처럼 12월에 크게 감산해 연간 생산량은 작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감산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대에도 중국 정부가 국내 총생산(GDP)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조강생산량을 증가시킨 바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국토지신탁, 재건축·재개발 ‘신흥강자’

전문성·노하우 등 단계별 관여

한국토지신탁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흥강자로 부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토지신탁이 신규 수주한 사업장은 목동 10단지 재건축, 여의도 삼익재건축, 삼전동 모아타운, 흑석 11구역, 창신 10·11구역,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등이다. 9월 현재 수도권 19개 사업장, 2만 여가구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정도다. 이는 신탁방식 도시정비라는 새로운 정비기법을 제시, 도시정비조합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게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마곡 신안빌라재건축(400가

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다. 조합은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했다. 한국토지신탁이 참여,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율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동서서 지구 개시 2주 만에 법정 동의율을 확보, 한 달여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한국토지신탁에 사업을 맡기는 이유는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 때문이다. 특히 신탁방식이라는 전문성, 노하우 등을 살려 각 단계별 사업에 관여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건설사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현대엔지니어링,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

외관 디자인 우수디자인으로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중인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의 외관 디자인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상품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굿디자인(GD)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3 굿디자인 어워드 환경 디자인 부문에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의 외관 디자인인 ‘스파클링 오브 라이트(Sparkling of Light)’를 출품, 워너(Winner)상을 수상했다.

스파클링 오브 라이트는 ‘빛의 반짝임’을 뜻하며, 부산 센텀시티의 화려한 야경과 수영강 수면에 반사돼 부서지는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빛이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의 외벽에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명칭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외벽에 수영강 수변과 조화로운 색채의 자재를 사용하고, 불규칙적인 웨이브 패턴을 넣어 강이 흐르는 생동감을 극대화했다”면서 “정문 앞 문주에 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자산운용사, 실적 개선에도 절반이 ‘적자’

자산운용사들 순이익 3849억원
전체 순이익 전분기 대비 7.7% ↓
“모니터링 등 지속 수행 예정”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실적은 개선됐지만 절반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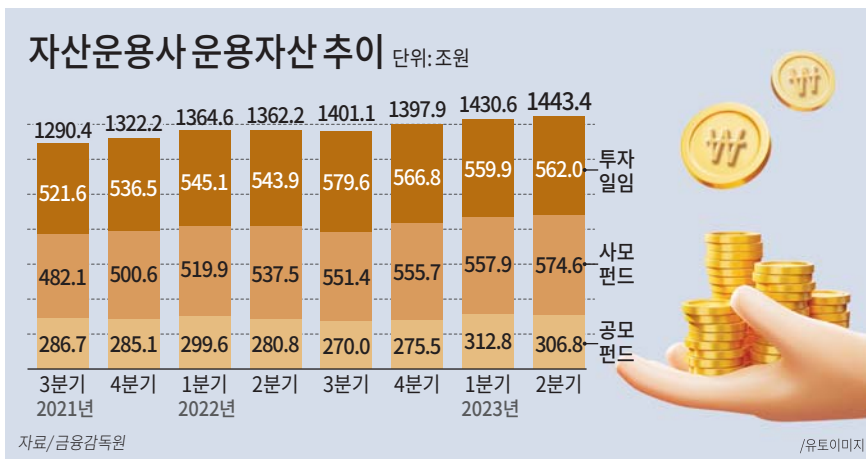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38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7% 늘었다. 전분기 대비로는 7.7% 감소했다.

영업수익은 1조23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다. 수수료수익 증가분이 1313억원으로 증권투자이익 감소분 705억원을 웃돌았다. 영업비용은 8241억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2.8% 늘었다.

회사별로는 455개 운용사가운데 절반 가량인 227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49.9%로 전분기 대비 9.7%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374개 일반사모운용사의 경우 163개사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21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56.4%로 전분기 대비 11.4%p나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수수료수익이 1조22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7% 증가했다. 펀드수수료 8387억원, 일임자문수수료 183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2%, 17.3% 늘었다.

2분기 중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p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펀드수탁고는 881조 4000억원이다.

공모펀드가 306조8000억원 규모로 3월 말보다 6조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15조9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채권형과 주식형은 각각 4조 9000억원,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사모펀드는 574조6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MM

F(+5조7000억원)와 부동산(+4조3000억원), 특별자산(+4조2000억원) 위주로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62조원으로 채권형이 39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형과 혼합채권이 각각 92조 8000억원, 42조2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수수료수익도 증가하는 등 일부 수익성 지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적자회사 비율이 높아지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오는 18일부터 4주간 실행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또 택배현장에 임시추가인력 7100명을 투입,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 연휴택배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추석부터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평시(7월 평균) 대비 물량이 약 17%(하루 1500만→1750만박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현장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 인력,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71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9월 28일~10월 3일)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